건강한 이미지가 있는 우유로 만든 섬유

밀크섬유는 1970년대에 탄생한 소재이다. 견과 같이 낭창낭창함과 아름다운 광택을 갖는 훌륭한 섬유이나, 가격이 높은 점이 있어 주로 일본옷용으로 사용되고 양장에는 그다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자연지향의 고양도 있고 자연의 것을 소재로 한 섬유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밀크섬유는 건강한(healthy)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기능성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패션너블한 소재로서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밀크섬유는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동물성 단백질의 밀크 카제인(섬유질)과 아크릴섬유의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을 결합시켜서 만든다. 밀크섬유 100g을 만드는 데에는 우유 1.4l가 필요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섬유이다. 섬유의 단면은 누에고치형의 불규칙한 형태를 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견은 삼각형). 견과 매우 유사하며, 소프트하고, 낭창낭창한 태가 있어 아름다운 광택을 방출하며, 흡습성이나 건조성이 높은 우수한 섬유이다. 발색성도 좋아 색상 변화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화학섬유보다도 10~20% 높으나, 견보다 30% 정도 값싸게 얻을 수 있다. 옛날부터 일본 옷을 위시하여 정장, 파티 드레스를 위시하여 슈트(suit), 코트, 블라우스, 스웨터 등에 사용되고 있다.